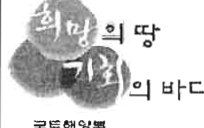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	보 도 자 료			
		배포 일시	2009. 12. 1(화) 총11매(본문5, 붙임6)		국토해양부
담당 부서	해안권기획과	담당 자	• 과장 서명교, 사무관 윤상훈 • ☎ (031)436-8911, 8913		
보 도 일 시		2009년 12월 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12월 2일(수) 10:00 이후 보도			

동·서·남해안권을 미래국토의 새로운 성장발전축으로

- 동·서·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수립 -

- 동·서·남해안권이 지역간 협력·통합을 바탕으로 초광역적인 미래 국토의 새로운 성장발전축으로 개발된다.
-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12월2일 개최된 ‘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’ 회의에서 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‘동·서·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’을 보고하고 해안권을 초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.
 - 보고에서 국토해양부는 **해안권별로 고유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**하도록 행정구역과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특화된 **비전과 발전전략**을 제시하였으며,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남해안은 「**새로운 경제·물류·휴양허브의 선벨트**」로 개발할 계획으로, 주요 전략으로는
 - ① 「**글로벌 경제·물류 거점으로 육성**」하기 위해, 조선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우주·로봇·핵과학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며

- 부산·광양항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며 배후에 복합산업 물류단지 등도 조성한다.
- ② 「**세계적 해양 관광·휴양지대로 조성**」하기 위해 거점별(한려수도권·다도해권·남도문화권) 고품격의 체류형 휴양·위락단지와 문화예술·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고,
 - 요트 등 해양레포츠와 국제크루즈 인프라를 조성하며 국제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 등도 개발한다.
- ③ 「**통합 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를 구축**」하기 위해서 남해안 일주철도를 점진적으로 복선·전철화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통합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며
 - 한일해협권 공동기구 설립 등을 통해 한·일간 경제·산업분야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.
- ④ 「**남중권을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 개발**」하기 위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를 조성하고, 동서통합의 상징으로 연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하며
 -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남해의 해안경관을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, 초광역적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한다.
- 동해안은 「**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·관광벨트**」로 조성되며, 그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.
 - ① 「**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**」을 위해 원자력(울진·월성·고리)·석유(울산)·LNG(삼척)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고
 - 연료전지·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시범단지 등을 조성한다.

- ② 「국제관광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」을 위해 설악~금강권·경주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울릉권과 연계관광을 개발하며,
- 관동8경·백두대간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과 청정해양자원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한다.
- ③ 「산업부문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」를 위해 포항(철강, 신소재)~경주(부품)~울산(자동차·조선)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을 구축하고 구미(전기·전자), 대구(부품) 등 내륙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부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
- 지역의 원천기술 기반의 R&D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신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간사업의 첨단화도 촉진한다.
- ④ 「인프라 구축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」를 위해 열악한 남북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, 동서연결 철도 등 내륙과의 연계교통망을 검토하며
- 울산·포항항은 물류거점 항만, 속초·동해항은 북방교역 항만으로 발전시키고, 한·중·러간 교류·협력사업도 활성화한다.
- 서해안은 「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·첨단 산업의 융복합 벨트」로 개발된다.
- ① 「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환황해권 협력체계 활성화」를 위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BT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비즈니스 핵심지대를 형성하고, 서해안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외협력 교류 협의회를 설치하여 초국경적 협력사업도 추진한다.
- * BTMICE : Business Travel, Meeting, Incentives, Convention, Exhibition 약자로 단순 컨벤션과 국제회의에서 벗어나 비즈니스, 쇼핑, 관광, 숙박 등을 결합

- ② 「경쟁력있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」을 위해 아산만·과주·평택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고, 수도권-충남-전북을 연계하여 자동차·로봇·기계 등 주력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며,
- 새만금·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·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충남-전북을 잇는 식품산업벨트를 조성한다.
- ③ 「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」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을 도로·철도망 등으로 연결하고
- 장기적으로 연안 초고속 페리운영 방안을 검토하며 중국북부 주요항만과 항만간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.
- ④ 「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」을 위해 자연여건이 좋은 태안 등 충남지역에 국제관광거점을 조성하고, 서해안의 갯벌 등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며,
- 새만금 등 주요지역별로 복합형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크루즈·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한 아라뱃길 연결루트도 개발한다.
- 이번에 제시된 기본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여 동·서·남 해안권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·확정할 계획이며,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정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Q & A

1. 초광역개발권의 추진배경 및 의미는 ?

- 정부는 지역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, 광역경제권,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,

- * (1차원) 기초생활권 : 163개 시군단위 기본적 삶의 보장
(2차원) 광역경제권 : 5+2 권역의 경제권 제고와 특화발전
(3차원) 초광역개발권 :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 신성장축 육성

-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으로서, 동북아시아와 통일을 대비하고 광역권간 연계·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간 상생발전 전략임

2. 초광역개발권 사업과 광역경제권 사업의 구분 기준은 ?

-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토대로 권역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특화발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 반면
- 초광역개발권 사업은 주로 시·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여 산업·자원·성장거점 등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

3. 동·서·남해안권의 범위는 ?

- 해안권은 「해안권발전특별법」에 따라 해안권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및 부속도서로서
- 동해안은 울산·강원·경북내 15개, 서해안은 인천·경기·충남·전북내 25개, 남해안은 부산·전남·경남내 35개 등 총 75개 시·군·구를 범위로 함.

4. 동·서·남해안권의 현황 및 잠재력은 ?

- 동·서·남해안권은 한반도의 결절(node) 지역으로 해안권별로 자연자원, 지역특화산업 등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
- 동북아 경제권과 환태평양·유라시아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국토의 개방축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

5.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의 후속 조치방안은 ?

- 현재 해안권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, 남해안은 지자체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협의 중이며, 동·서해안은 자체적으로 시안 마련 중으로

-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안권발전위원회 (위원장 : 총리)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, 이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

6.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?

-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방안은 발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 추진사업과 함께 구체화될 계획이며
- SOC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들은 정부재정으로 우선 지원하되,
 -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위한 특수법인 운영, 민자 및 외자유치 방안 마련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,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

7.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한 해안권별 개발 비전은 ?

- 남해안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물류·휴양허브의 선벨트로 개발하고
-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·관광벨트로, 서해안은 환황해권을 주도하는 신산업벨트로 개발할 계획

8. 해안권 개발로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가 ?

- 기본구상에서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난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해안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,
- 앞으로 해안권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세계적인 명품 해안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
 - 특히 내년중 「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(가칭)」을 마련하여 해안과의 거리, 조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

9.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은 ?

- 해안권은 관광, 조선 등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, 개발계획 수립시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음에 따라
-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

10.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참여확대 방안은?

- 해안권 초광역개발의 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“해안권 발전” 전용 홈페이지(<http://mltm.go.kr/coast/>) 개설·운영중이며,
 - 12월부터 정기적으로 해안권 발전방향 등에 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계획임
-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안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할 예정임

11. 초국경적 협력사업의 현황과 추진전략은 ?

- 현재 초국경적 협력사업은 아주 기초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
- 앞으로 환동해권·환황해권·한일해협권간 초국경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·국제물류·산업·항만 등 다양한 분야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회의 및 공동기구 설립 부문별 협력사업 등도 추진